

#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죽왕면 시민기자  
최돈불(choi3789100@hanmail.net)  
▶토성면 시민기자  
강성희(ruthcanada@hanmail.net)  
김태극

※간성·죽왕·토성에서 발생하는 아기  
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  
민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681-1666>

## 천진2리 소나무 3그루 고사 논란

### 주민들 원인 규명·배상 요구 ... 고성군 녹장 대응 성토

“수령 100여년이 넘는 소나무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죽어가고 있어 고성군에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토성면 천진2리(이장 이동환) 주민들이 마을 뒤쪽에 있는 100여년 된 소나무 3그루가 인근에 위치한 수산물 수입 업체에서 내보낸 바닷물 때문에 말라 죽어가는 것 같으며, 원인 규명과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특히 이런 현상이 발생한 초기에 고성군에 알리고 조치를 요청했으나,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소나무가 다 말라 죽은 뒤에야 현장을 찾아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천진2리 이동환 이장은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환경보호과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번도 나와보지 않다가

나무가 다 죽은 뒤에야 현장을 찾았다”며 “업체도 문제지만, 행정에서도 녹장 대응을 해 문제를 부풀렸다”고 했다.

주민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수산물 수입 업체인 K통상은 다른 시각을 보였다.

K통상 관계자는 지난 3일 “본래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주 배관을 통해 바닷물과 오폐수를 내보냈는데, 올해초부터 관로가 막혀서 인지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어쩔 수 없이 지난 2월 26일부터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쪽으로 물을 빼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 배관이 역류해 관로를 새로 설치하려고 고성군에 문의했으나, 국토관리청 소관지역이라서 공사를 하기 까다롭다고 해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쪽으로 물을 빼게 된 것”이라며 “2월 26일 이후 5월말까지 총 3회만 물을 뺐으며, 6월부터는 호

스를 연결해 천진천으로 빠지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고성군 농정산림과 관계자는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정확한 원인은 분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병충해 등이 원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장처럼 바닷물이 섞인 폐수가 지나가면서 염분 때문에 뿌리가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동환 이장은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 바닷물에 의해 죽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업체에게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 간성 김밥천국

김밥·분식·식사류

모든 메뉴를 포장·배달해 드립니다

681-9999

##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

## 바다풍경 편의점

“경동대 입구·학생 환영”

각종 생활용품  
문구류·케익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279  
☎033-633-7282

간성·죽왕·토성 광고 문의  
☎681-1666~7

## “피서 성수기 상가지역 공사 나중예”

###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천진 시가지 1,400m 구간 설명회

죽왕면과 토성면 지역의 오폐수를 처리하게 될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가운데, 천진 시가지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1일 오후 2시 토성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공업체인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2일부터 내년 6월까지 13개월간 천진 시가지 도로 1,400m 구간에서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재료를 제대로 사용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고, 여름 피서철 성수기에는



지난 1일 오후 2시 토성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천진 시가지 통과 구간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공사기간을 조정해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가 밀집지역은 8월 이후에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 해상리 건봉다시마장 송악중학교 체험학습

간성을 해상리에 위치한 건봉다시마장식품(대표 엄명호)은 지난 6일 충남 당진의 송악중학교에서 학습체험을 위해 방문한 학교 관계자 및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고성지역 고유의 장인 막장 만들기를 소개했다. 또 떡작장 비빔밥 등 시골밥상으로 체험하도록 해 우리 지역 전통 향토음식의 맛을 알렸다.

박승근 기자

